송강호 "슬픔 딛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박해일 "故 전미선과 작품 함께해 영광"

영화 '나랏말싸미' 언론 시사회

훈민정음 창제한 세종대왕 마지막 8년 그려 오승현 대표 "순수 창작물"

조철현 감독(왼쪽부터), 배우 송강호, 박해일이 영화 '나랏말싸미' 시사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를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영화가 슬픔을 딛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송강호)

"(전미선) 선배님의 마지막 작품을 함께 해서 영광입니다. 보는 분들도 이 작품을 따뜻한 온기로 품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박해일)

영화 '나랏말싸미'의 배우와 관객들이 지난달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전미선에 대해 그리움을 표현했다.

1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영화관에서 '나랏말싸미' 언론시사회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송강호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 감독,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슬픔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힘들게 말을 꺼냈다.

박해일도 "촬영할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 전미선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두 배우는 이날 검은 넥타이를 매고 행사에 참석했다.

'나랏말싸미'는 문자와 지식을 권력으로 독점한 조선 시대, 모든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의 마지막 8년을 그리는 영화다. 세종과 스님 신미가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는 창제설을 소재로 했다. 송강호가 세종, 박해일이 신미 스님, 전미선이 소헌왕후를 연기했다.

조철현 감독은 영화 속에서 세종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소헌왕후의 천도재를 지내는 장면을 언급하며 "해당 장면을 찍을 때 전미선 씨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음악을 틀고 촬영했는데 궁녀 역할 하는 분들이 많이 우셨다. 천도재 장면에서 부른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직접 지었다는 책을 참고로 작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힘들다"고 전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송강호는 "천도재 장면을 찍은 날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었다"며 "의도치는 않았지만 슬픈 운명 같다"고 심경을 표현했다.

영화에서는 한글 창제 과정에서의 세종의 인간적인 고뇌, 신미와의 갈등,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대장부 같은 소헌왕후의 모습 등이 다뤄진다.

송강호는 세종대왕을 연기한 데 대해 "가장 많이 알려진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성군이다"며 "우리 스스로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세종대왕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모습을 배우로서 창의적이고 새롭게 파괴하려 했다"며 "훈민정음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군주로서의 외로움에 초점을 맞춘 것은 처음일 것 같다. 연기할 때도 초점을 거기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신미 스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인물이다. 박해일은 "신미 스님이 다른 스님들과 다른 부분은 언어에 능통하다는 것이다. 인도학과 교수님에게 산스크리트어를 배웠다"며 "영화의 시대가 불교를 억압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신분이 높은 세종대왕과 만날 때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생각했다"고 돌아봤다.

소헌왕후를 연기한 전미선은 자신이 직접 대사를 만들어 넣기도 했다.

조철현 감독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대사가 있었다. 소헌왕후가 세종에게 처음으로 일침을 놓는 대사다"며 "'백성들은 더 이상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라는 대사는 전미선 배우가 직접 만들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에게 할 수 있는 대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나랏말싸미'는 개봉을 앞두고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한 출판사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영화사와 감독은 합의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 영화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의 오승현 대표는 기자간담회 직전 "영화 개봉하면 곧 모든 분이 알게 되겠지만, 원작이 아닌 순수 창작물이다"며 "합의를 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제동, KBS '오늘밤 김제동' 9월 중 하차

"지켜봐준 시청자에 감사 마지막까지 최선"

방송인 김제동이 1년여간 진행한 KBS 1TV 시사 토크쇼 '오늘밤 김제동'에서 하차한다.

소속사 아침별은 김제동이 오는 가을 개편 전인 9월 중 하차한다고 1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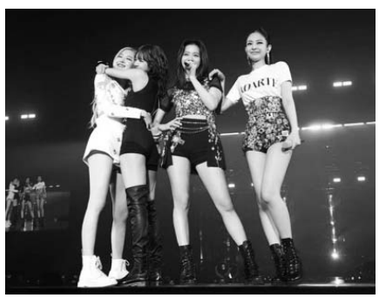
'오늘밤 김제동'은 당일 이슈에 관해 이야기하며 내일의 변화를 읽어내는 생방송 시사 토크쇼로 지난해 9월 10일 시작해 매주 월~목요일 방송했다.

방송 기간 최고 시청률 6%(닐슨코리아), 평균 시청률 4%대를 유지하며 중장년층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방송이 다룬 일부 이슈와 관련해 정치 논쟁을 유발하기도 했으며, 김제동의 출연료 또한 고액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제동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잘 지냈는지 따뜻한 안부를 여쭤보기 위해 만든 방송이었던 만큼 1년여간의 수많은 밤 동안 함께하기 위해 출연해 주신 시민과 각 분야 전문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만들어 준 수고해준 스태프, 지켜 봐주셨던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남은 방송까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블랙핑크, 첫 월드투어 마쳐…"평균 좌석 점유율 96%"



걸그룹 블랙핑크가 지난 주말 태국 방콕을 끝으로 8개월에 걸친 첫 월드투어를 마무리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월드투어를 시작해 이달 12~14일 방콕까지 23개 도시에서 32회 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마닐라,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카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지 22회 공연이 매진됐으며, 월드투어 전체 평균 좌석 점유율이 96.6%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YG는 "블랙핑크가 첫 월드투어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와 많은 회차 공연을 진행했다"며 "특히 북미 투어에서는 회당 1만석이 넘는 아레나(경기장) 급 규모로 공연을 펼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신입사관 구해령(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숨터(재)	00 저스티스(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태양의 계절(재)	00 12 MBC 뉴스 20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K트롯 서바이벌 골든마이크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어사 쿵도령 2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2	20 시노스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꼬마돌 도도 2(재) 50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20 모두 다 쿵따리	00 네모세모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 V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신입사관 구해령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오늘밤 김제동	00 저스티스	0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1~2부	00 닥터탐정
11	35 UHD 숨터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세빌리아의 이발사 1~2부	10 접속! 무비월드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문화사색	20 나이트라인 50 테마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15 띠띠뽀 띠띠뽀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07:45 페파 피그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피피루 안전특공대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마샤와 곰
09:30 몰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3:00 지식채널e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3:40 다큐 시선
14:30 띠띠뽀 띠띠뽀(재)
14:4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15:00 탑윙 구조대
15:30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5:4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16:00 예술아 놀자
16:1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16:30 딩동댕 유치원1~2(재)
17:00 EBS 뉴스
17:20 다큐동화 달팽이
17:30 페파 피그(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5
19:00 레이디버그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20:40 세계테마기행
〈여름날의 꿈 캄보디아 4부 춤추는 바다〉
21:30 한국기행
〈이곳은 신선동 4부 자연과 사귀는 법〉
21:50 다큐 시선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25:10 과학 다큐-비욘드(Beyon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8일(음 6월 16일 丙辰)

子 36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게 된다. 48년생 현안이 쉽게 처리 되는 장면이다. 60년생 호조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느니라. 72년생 상대가 심경의 변화를 심하게 보일 수도 있음을 감안 해야겠다. 84년생 치밀한 분석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33, 87

丑 37년생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해도 무방하다. 49년생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61년생 형식적인 허울보다 실질적인 가치가 훨씬 더 낫다. 73년생 막연하다면 위험에 처해지기 십상이다. 85년생 우연히 맞닥뜨릴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7, 62

寅 38년생 앞에 거칠 것 없이 부드러운 운로이니라. 50년생 낱낱이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62년생 과욕 한다면 필히 근심이 생기리라. 74년생 매끄러운 마무리가 이미지를 좌우 하겠다. 86년생 처음처럼 그대로 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행운의 숫자 : 44, 66

卯 39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고 조처해야 할 때다. 51년생 교체 해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갈 수 있다. 63년생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주의하라. 75년생 때와 장소를 가려야만 한다. 87년생 정다운 이웃은 멀리 있는 형제보다 훨씬 낫다. 행운의 숫자 : 51, 23

辰 40년생 좋은 일이 있을 때 마도 함께하는 판세이다. 52년생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64년생 용기 있는 이만이 행운을 잡는다. 76년생 기본적인 원리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88년생 사소한 허점이 위험으로 비화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1, 33

巳 41년생 견주어 본다면 한 눈에 쉽게 드러나리라. 53년생 고정 관념을 버린다면 새로운 면모를 읽을 수 있다. 65년생 비슷한 정황이 반복 되리라. 77년생 격식이 필요한 때이므로 외형을 제대로 갖춰야겠다. 89년생 마음에 드는 쪽으로 택하면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06, 40

午 42년생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54년생 현태가 매우 불리하니 재빨리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옳다. 66년생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78년생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형국이다. 90년생 발상은 참신하나 진행 속도는 점진적이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8, 56

未 43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실효적인 결과에 이르게 한다. 55년생 근심 없이 편히 지내겠다. 67년생 가까운 이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79년생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91년생 가벼운 언행은 공든 탑을 무너지게 한다. 행운의 숫자 : 22, 82

申 44년생 일단, 최선을 다 한 다음에 논의할 일이다. 56년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도다. 68년생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80년생 집착은 발전의 발목을 붙잡는 악재가 된다. 92년생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62, 79

酉 45년생 장소를 잘 가리지 않으면 역효과가 난다. 57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 했던 행운이 깃드는 양태이다. 69년생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전연 다른 국량이 된다. 81년생 중복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93년생 배려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행운의 숫자 : 67, 50

戌 34년생 옛 인연을 소중히 여김이 바람직하다. 46년생 다채로운 변화의 시도와 응용이 이롭다. 58년생 농담이 진담으로 될 수도 있다. 70년생 작은 이익 앞에서 현혹 될 필요는 없다. 82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솟아날 구멍은 있음을 확신하자. 행운의 숫자 : 86, 42

亥 35년생 손발이 척척 맞아서 순조로움을 더 하겠다. 47년생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59년생 의외의 변수로 인해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71년생 파장이 일면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83년생 미루어져 왔던 일이 재개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76, 5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